

기관단체 소식

■ 서기관급 6명 승진

—농수산부 4월18일자—

농수산부는 지난 18일자로 서기관급 인사가 있었다.

승진 임명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오창근: 종자보급소 보급과장
- 노순종: 생산검사소 부산 지소장
- 이현복: 생산검사소 서무과장
- 김영욱: 농수산부 근무
- 김상욱: 농업공무원 서무과장
- 신현제: 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장

축산과장에 申洵雨씨 발령

농수산부는 지난 4월 12일부로 축산과장에 신순우씨를 발령했다.

신임 신순우 축산과장은 1969년에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 70년 3월 농수산부에 첫발을 들여놓은후 종합계획담당관, 농업개발국 개발기획과장, 특작과장, 농정국 가격관리과장 등 요직을 두루거쳐 이번에 축산과장에 발탁되었다.

■ 축산 4단체장 축산국장 초청 간담회

본회 정태원회장, 전동용 양돈협회장, 송찬원 종축개량협회장, 유윤수 낙농육우협회장 등 축산 4단체장은 지난 4월 15일 오전 7시 김광희 축산국장 및 신순우 축산과장을 초청, 상견례를 겸

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육류소비 촉진문제, 종축개량 등 축산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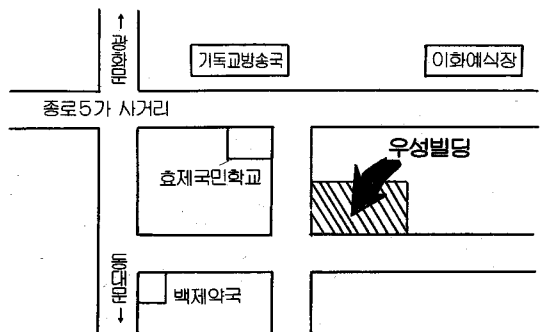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광희 축산국장은 「축산업 발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황인옥 전무, 조진영 양돈협회 부회장, 한백용 양돈협회 전무, 박신호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 전무 등 각 단체 전무단이 함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 한국육계납세조합 사무실 이전

지난 4월 30일부로 조합 사무실 이전 및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변경된 전화: 745-8724, 745-9291
- 이전사무실 약도
- 주소: 종로구 효제동 117의 1 우석빌딩 305호



■ 식물의 수입 금지구역 설정

농수산부는 국제간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식물(植物)의 종류도 다양화 되어가고 새로운 질병발생 및 분포의 변화에 따라 농수산부공고 제 86-3 호로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고 하였다.

■ 영국 농업전시회 개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영국위크샤주에서 120개국이 참가하는 농업전시회가 개최 된다.

행사내용은 컴퓨터화된 생산공정 축산물, 농작물 및 기계기구등이 전시되고 새로운 기술이 소개된다. 우수한 혈통을 가진 가축들이 전시 되는 등 흥미로운 전시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 제34차 가축질병 예찰 협의회 개최

—돼지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후의 방역대책논의—

제35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위원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설동섭박사)가 지난 4월 30일(수) 오후 2시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각도 가축위생시험소장과 진흥청 관계관, 축산시험장 관계관, 수의사회, 축종별 생산자단체, 동물약품협회 연구소 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질병발생 동향을 검토하고 돼지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후의 방역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를 맞아 뉴캐슬(ND) 및 돼지콜레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양농가에서는 가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 세균에 오염된 생란의 위생실태에 관한 토론회

지난 4월 9일 (수) 오후 2시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김천주) 회의실에서 제과·제빵 11개 업체 대표와, 농개공 송인상박사, 제과업자 소비자등 20명이 참석해 세균에 오염된 생란의 위생실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부클럽연합회에서 과거 오래된 자료와 현 양계산업의 생산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극소수의 비위생란이 전체 인것 같이 오인하고, 자료제시와 함께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본회는 이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시와 설명으로 잘못된 인식들을 완전히 불식시켰다.

■ 사료 외상판매기간 단축 협조의뢰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4월 18일 본회에 배합사료 외상판매기간 단축 협조를 의뢰했다.

사료협회는 양계산물에 대한 수요감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로인해 여타 축산 연관산업에 일시적 수요과열과 자금회전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 현상은 국내 배합사료공장의 과당 판매경쟁과 양축가들의 외상구매선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앞으로 국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배합사료의 장기 외상 구매현상을 시급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고, 양계업계에 협조를 의뢰했다.

■ 한국 영양학회 춘계 심포지움 개최

지난 4월 19일 오전 9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영양학회 주최로 춘계 심포지움이 있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사람들의 식성과 체질,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을 국내 처음으로 제정, 발표하였다.

김숙희 한국영양학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식사지침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60여개국 이상이 자기 나라에 맞는 내용의 식사지침을 만들어 정책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다양하게 먹을것”과 술, 담배, 카페인 음료를 줄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